

다산포럼

김정남



국가공동체가 순탄한 진행을 못할 때, 그 탓을 공무원에 돌려 그들을 질타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유행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이 그만큼 만만한 것이다. 일찍이 루쉰(魯迅)은 그의 글 '늑장(賊)'에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관료를 공격하는 것이 유행의 참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관료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평민이 변화한 것 뿐입니다" 하였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 역시 한 때 민주화 투쟁의 기간에는 공무원이란 부당한 권력, 거대한 악에 기생·봉사하는 집단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록 잠깐이지만 정부에 들어가 일하면서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치군인의 무리와 그 잘난 역대 지도자들이 있어 지탱·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공무원이 있어 이 만큼이라도 나라꼴을 갖추게 된 것임을 알았다.

실제로 나는 1천500여 명에 달하는 전

교조 해직교사를 복직시킬 때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과 그 성실성,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에 놀랐다. 역사를 보면 관료들의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존재 때문에 나라의 명맥이 유

영혼 없는 공무원 누가 만드나

지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 이른바 '공무원의 영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가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에 대한 반론 비슷하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출된 권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자조가 그 말 속에 담겨있었다.

100년 전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맹목성과 위험성을 간파했다는 그 통찰력이 한국에서 새삼스럽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또 다시 '공무원의 영혼'이 문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계시장장은 지난날 참여정부 시절, 중부세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린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뀐 방향에 따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강변

했다고 한다. 바로 그 부처의 장관조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의 정신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말은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과연 그러가. 나는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보고 싶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공무원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불어

넣지 않고는 권력이 할 뜻이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키는 쪽이 정당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과 공동선에 합치되고,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민복에 합당한지를 심사숙고, 신중히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가. 권력의 무분별과 졸속, 아집과 편견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먼저 구한다면 영혼 없는 공무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좌우로 정권이 이동할 때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더욱 양산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영혼을 가지고 살려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혼은 저절로 주어지거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산(茶山)은 목민심서의 봉공(奉公) 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윗사람의 명령이 공백에 어긋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구조조정 평가 '낙제점' 받은 전남대 현실

전남대가 국립대 구조조정 연차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국립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특성화 전략, 성과지표, 재정 운용 효율화 등 지표별 평가 결과, 전남대가 6개 대학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사업비까지 삭감됐다고 하니 안타깝다.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수대와 통폐합을 해 기대를 모은 전남대는 유사 중부학과 등 통폐합 부문의 특성화 분야 육성 전략 타당성, 목표 적정성 등에서 61점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대는 물론 충주대, 공주대, 강원대, 강릉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대는 지난 2006년 유사중부학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저점에 그쳤다. 대학의 특성화 분야 육성 전략 타당성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

니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왜 통합을 했는지 의문이다. 통폐합의 목표는 유사 중부학과 통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반발 등이 따르겠지만 통폐합 없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쟁력은 취업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남대가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던 문화, 재능나눔 부문의 졸업생 취업률까지 전체 평균 취업률보다 낮았다니 큰 일이다. 화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대학 특성화 등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는 광주·전남의 대표적 대학이다. 전남대의 문제는 대학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이 전남대의 위상과 역할에 회의적 입장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전남대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환자 역외유출 '도미노' 방지할 전가

광주·전남 의료계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 절실하다.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외면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병원을 찾는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방지하려면 지역 의료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교육, 환경, 복지 등과 더불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기업유치와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모두 5천600억원의 진료비가 역외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천억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환자들이 매년 평균 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역외 유출은 지역 의료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에서 연간 400여명의 병원이 휴폐

업하지만 신규 개원은 70여곳에 불과하다. 의료 서비스 기반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질과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광주·전남 67개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B~C등급을 받았다. 의료장비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도 전국 86개 대형 종합병원을 평가한 결과, 1곳도 우수병원에 뽑히지 못할 만큼 엉망이다. 질과 서비스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 환자들을 탈환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의료시장의 개방은 코앞에 다가왔다. 지역 의료계는 중소병원 통폐합, 진료영역 특성화, 첨단장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NGO 칼럼

오성민



현재 고유가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다. 치솟는 고유가 때문에 차량 10부제에서 5부제로 바뀌고 관공서에서는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모두가 기름값 아끼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공서가 기름값 낭비에 앞장서는 못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6년 12월1일 전국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16만8천985t이었다. 지난 2000년 12월(7만8천777t/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

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백km를 떨어져 있는 폐기물처리장까지 수주가 이어져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엄청난 유류를 길에다 쏟아붓게 되고, 업체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재활용폐기물까지도 가져감으로써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은 국가적 손실로까지 이어져 환경적으로나 경제논리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재활용 규정에 대한 관련 법규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

폐기물 분리 배출 왜 문제인가

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대규모 신도시, 뉴타운, 행정도시 건설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수요를 감안한다면 건설폐기물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거나 원활한 폐기물의 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 관공서 중에 발생하는 100t 이상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이 시행됐다. 이는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폐기물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시행처)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폐기물 처리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폐기물 처리의 불법적인 처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전국 입찰로 바뀌면서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위치한 곳까지 가지고 가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입찰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건설폐기물이 해당지

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백km를 떨어져 있는 폐기물처리장까지 수주가 이어져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엄청난 유류를 길에다 쏟아붓게 되고, 업체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재활용폐기물까지도 가져감으로써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은 국가적 손실로까지 이어져 환경적으로나 경제논리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재활용 규정에 대한 관련 법규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

경제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보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거나 거리 제한 및 컨소시엄 구성 등 합리적인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보전시민연대 사무처장>

아르바이트생에 성희롱·언어 폭력 심각

고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맥주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열흘만에 그만뒀다. 성희롱 때문이었다.

주인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 살 좀 빼", "가슴 좀 키워" 등 성희롱을 거러김 없이 했다. 그렇다고 주인이 하는 말을 일일이 녹음기로 녹음했다가 고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하지만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의 언어폭력은 다반사라며 혀를 내둘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어른이라는 위

압감에다가 주인이라는 특수성, 당장 돈이 궁한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약점 등으로 여성들은 성희롱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렇지만 상당수 남성들은 이런 말들을 죄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해대는 것이다. "해서야 안될 말"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근무하는 24시간 편의점이나 생맥주 판매점 등에서 언어 폭력,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등 책자를 배포, 언어 전화 활동을 벌였으니 한다.

▲이름·광주시 남구 회장동



일본원숭이 새끼의 '塞翁之馬'

(새움지마)



새끼들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귀엽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닮은 원숭이는 귀여움이 더욱 유발한다.

이 녀석은 '원숭이'란 녀석으로 알겠으며 석달 전에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난산 끝에 어미가 죽어, 줄곧 사육사가 돌보면서 우유를 먹여 정성껏 키웠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육사는 주말에 집에까지 데려가는 심려를 기울인 덕에 주름살투성이에서 이제 제법 성인 원숭이 티가 난다.

보통 원숭이들은 사람을 무척 두려워하는 편이지만 - 원숭이들의 사나운 행동도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 역시 사람의 손으로 키워서 그런지 누구 손길이라도 특별히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대

신 무리성이 강한 일본원숭이 집단으로의 재진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인공 포육한 원숭이들은 대개 조련용으로 키우는 게 원숭이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 서로 부담이 덜 가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숭이와 짝을 맺어 결혼을 시키면 그 자손이 반항해 3대 정도 되면 일가를 이룰 수도 있다.

만일 억지로 무리에 넣으면 공격당하지 않는다 해도 텃세에 눌려 평생 완파를 당할 확률이 높다. 어려워도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이 원숭이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lvnat@hanmail.net

유통구조 왜곡 '쌀 카드깡' 강력 단속을

쌀은 단순한 곡식 정도가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한 민족문화의 하나이며 농업의 상징이다. 더구나 쌀은 1년간 농사를 지어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곡물이다. 그런데 최근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명 '쌀 카드깡'이 성행한다니 분통이 터진다.

'쌀 카드깡'이 무엇인가. 사재업자가 급전이 필요할 사람에게 선이자를 떼고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 후 이 카드에 대형유통매장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그리고 쌀 유통업자에게 구입가격 이하로 재판매해 일일이익의 이익을 챙긴다. 물론 유통업자는 무자료로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대형유통매장은 쌀을 대량으로 팔 수 있으니 공생

공존이다. 이렇게 조직적인 거래가 중소도시 위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니 안타깝고 화가 난다. 솔직히 대형 매장에 가면 쌀의 할인행사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어쩌면 '쌀 카드깡'으로 사들인 것을 싸게 파는 관측행사인 것 같아 곰지만은 앓다.

'쌀 카드깡'이 만연하면 쌀 유통이 왜곡되고, 가격의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자들의 무자료 거래는 탈세로 이어진다.

관계 당국은 이런 불법적인 '쌀 카드깡'을 강력히 단속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중한 쌀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김일복·보성군 문덕면

無等鼓

'10월의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구가 며칠 전 신문에 보도돼 눈길을 끈 적이 있다. 그때가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기사였다. 대검찰청이 분석해 발표한 '2007년 범죄 분석 통계자료' 내용이다.

이 통계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10월의 범죄 발생률은 5월에 비해 단지 2%가량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토요일은 금요일에 비해 1%가 높지 않은 사실도 드러난다. 범죄의 경우 흉악성 정도가 더 큰 의미를 갖는데 이처럼 숫자만 나열하는 통계는 허점 투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런 종류의 통계는 썩 과학적이지 않아도 큰 해악은 없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런가' 정도로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경제 관련 통계에서 무려 10조원 이상 차이가 나게 작성, 발표되는 한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채무, 국내총생산

등 국가의 주요 통계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발견한 오류가 1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중 국가채무 규모는 무려 9조원의 차이가 났고 지난해 상반기 나라살림 통계도 17조원이나 잘못 집계한 뒤 수정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한술 더 떠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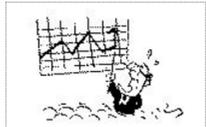
내용을 임의로 바꾼 통계가 지난해까지 5년간 100건이 넘는다는 자료도 나왔다.

누군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통계라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라면 통계가 잘못됐다는 통계마저 믿기지 않는다. 잘못된 통계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게 큰 문제다.

국가의 정치·경제 정책안이나 결정은 물론 기업과 가계 등의 일상활동이 모두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통계와 거짓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독자서비스센터 2200-551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처 부 2200-616	여객서비스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